"샌드위치 경제속, 해답(解答)은 없는가?"

사) 한국오리협회장 **김 만 섭**

새해 초부터 우리 국민들은 기분 좋은 뉴스를 하나 들었다. 올해로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IMF 외환위기를 맞은 지 10년 째 되는 해에 위기를 극복하고 오히려 우리 경제가 한 발 더 전진했다니 반가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이처럼 반가운 뉴스에 마냥 즐겁지만은 않다. 지난 40여년간 한 세대 안에 경제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를 실현한 저력을 보인 우리 국민들이지만 그것은 지나간 과거의 업적일 뿐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이다.

과거에 쌓아올렸던 업적이 10년~20년 후 미래까지 자동적으로 먹고 살 것을 보장해줄 만큼 국제 경쟁의 세계는 한가하지 않다. 세계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 모두가 21세기 초반에 선진국으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주저앉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먼 옛날, 아기돼지 3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엄마돼지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길을 나섰다. 3형제가 각자 원하는 곳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

첫째는, 귀찮다고 짚으로 대충 엮어서 하루만에 집을 지었고 둘째도, 나무를 베어다 일주일만에, 셋째는,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려 한 달만에 집을 지었다.

첫째와 둘째돼지가 미련하다고 놀려댔지만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하고 아늑한 집을 짓겠다며 셋째돼지는 열심히 집을 지었다.

그러던 어느 날, 굶주린 늑대가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기돼지들을 보곤 잡아먹기로 결심하고 첫째 돼지를 따라 갔다. 첫째돼지는 너무나 무서워 집으로 쏙 들어가고, 늑대가 후~하고 불자 짚으로 엮은 집이 날아가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말았다.

둘째 역시 입김에 집이 날아가 잡아먹히고, 늑대는 셋째돼지에게 가서 똑같이 입김을 불었다. 그러나 벽돌로 단단히 지은 집은 날아가기는커

녕 꿈쩍도 하지 않았다. 결국 셋째돼지는 튼튼하게 지은 집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지금 오리업계는 물론 축산업계 전체를 볼 때, 늑대에게 목숨을 내맡긴 돼지들의 상황과 다를 것이 없다.

작금의 오리산업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내부적으로, 지난 늦가을부터 공식적 방역기간이 끝난 올해 4월까지 우리는 HPAI로 인해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가 타결되어 비준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곧이어 한 · EU FTA, 한 · 일 FTA, 한 · 중 FTA 등이 속속 예정돼 각국과의 무역장벽이 점차 무너져 그동안 수입금지 혹은 제약이 있던 각국의 생물오리 및 육제품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무역장벽이 사라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쉽게 말해 필요로 하는 재화를 싸게 들여올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의 산업을 그대로 노출시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는 큰 취약점이 발생한다. 샌드위치 경제가 바로 그것이다.

'서울이 몽유병에 걸렸다(Seoul sleepwalk)'는 제목으로 세계의 유수한 경제지인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가 한국 경제 특집기사를 실었다. 세계의 거울에 비친 한국 경제의 모습이 잠자다 불쑥 일어나 사방을 배회하는 정신 나간 몽유병자 같다는 것이다.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은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기는 하지만 우리의 경제현실을 좀 더 냉철하게 보아야만 하는 분명한 이유가 된다.

중국과 일본, 인도가 전략적 경제협력을 강화하여 삼국축을 형성하여 새로운 세계경제의 경제3국으로 부상하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고관세와 무역협약 등 산업적으로 불리할 경우, 큰 타격을 입지 않는 쪽으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지금처럼 시장개방이 급속도로 이루어진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중국은 무한한 인력과 풍부한 자원으로 최근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탄탄한 경제정책과 독창성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다.

일례를 들자면, 중국 가전제품 브랜드 하이얼(Haier)은 최신형 전자제품의 초저가 판매전략으로 세계 가전시장에서 마케셔를 늘리고 있으며 일본의 화우는 두당 담당자가 한명씩 붙어 사양관리를 할 만큼 공을 들여 상당한 고가임에도 내수판매는 물론 수출량이 많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삼성도 이러한 추세에 맞춰, 손실이 예상됨에도 비전이 떨어지는 계열사를 정리하고 외국에서도 소위 먹힌다는 브랜드 제품만을 육성하는 결단을 내린 바 있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외수출시장에서 중 · 일 기업에 비해 △규모의 열세 △노동생산성의 저조 △기술혁신의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는 얼마나 대비하고 있는지 생각해봤다.

검역원 조사에 따르면, 2007년 1~5월 중순 기준으로 대만에서 수입된 오리 냉동육이 올해만 약 198톤에 육박하고 있으며 그것도 월별 수입량이 수직상승 중에 있다고 한다.

더욱이 수입된 그 오리육들이 어디에서 소비되는지,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상황이다. 지금 오리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 이대로 시장이 개방돼 버린다면 우리 오리업계는 과연 무사할 것인가?

앞서 말한 아기돼지 3형제의 이야기에서 늑대에게 잡아먹힌 첫째, 둘째 돼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막내 돼지와 같은 철저한 준비와 그에 마땅한 경쟁력이 필요할 것이다.